

《浣紗記》의 本事와 主題**

黃 炫 國*

◁ 목 차 ▷

- | | |
|------------|------------|
| I. 序言 | IV. 改編과 主題 |
| II. 本事的 考察 | V. 結語 |
| III. 劇情梗概 | |

I. 序言

梁辰魚(1519~1579)의 《浣紗記》는 明代 傳奇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다. 명대에 전기가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崑腔의 유행이다. 崑山腔은 弋陽腔、余姚腔、海鹽腔과 함께 四大聲腔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崑腔을 魏良輔가 민간 藝人과 합작하여 각종 회곡음악의 장점을 섭취하여 개혁하였다. 개혁을 거친 崑腔은 그 곡조가 優美하고 반주법이 우수하여 표현력이 대폭 제고되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徐謂와 沈德符의 기재를 보면 崑腔이 얼마나 유행하였는지를 보여준다.

崑山腔은 ……流麗하고 悠遠하여 다른 세 腔調보다 뛰어나 이를 들으면 사람을 가장 감동시킨다. (「……流麗悠遠，出乎三腔之上，聽之最足蕩人。」)¹⁾

吳 지방 사람들이 南曲을 중히 여겨 崑山 魏良輔를 宗祖로 삼으면서부터 北詞는 거의 폐하게 되었다. (「自吳人重南曲，皆祖崑山魏良輔，而北詞幾廢……」)²⁾

이러한 崑腔의 성행은 명대 전기가 발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위량보의 개혁과 때를 같이하여 梁辰魚가 崑腔 「新聲」으로 《浣紗記》를 지었다. 《浣紗記》는 그 작품자체가 崑腔劇의 典範이 되었으며 崑腔이 널리 전파되는데 막대한 작용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전공 부교수

** 이 연구는 2000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1) 徐謂 《南詞敘錄》(《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第三集，中國戲劇出版社，1982年)，242쪽.

2) 沈德符 《顧曲雜言》(《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第四集，中國戲劇出版社，1982年)，212쪽.

을 하였다. 《浣紗記》의 성공은 崑曲이 무대에서 성공했음을 대표한다. 崑腔의 개혁과 《浣紗記》의 출현이 전기발전에 끼친 영향은 이미 공인되었고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浣紗記》는 이것 이외에도 작품의 사상내용이 관중과 독자의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浣紗記》는 심각한 사상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范蠡와 西施의 애정고사를 실마리로 춘추시대 吳越爭霸의 역사장면을 전개시켜 국가흥망의 규율을 반영하였다. 비록 무대에 올린 것은 역사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구현하는 사상정신은 매우 심각한 현실의의를 가지고 있다. 《浣紗記》의 이러한 주제방면의 성취도 명대 전기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³⁾

본 논문에서는 《浣紗記》의 본사를 고찰하여 그 본사와 《浣紗記》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자가 의도적으로 개편한 곳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작자가 개편을 통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사상적인 추구를 알아내어 《浣紗記》의 구체적인 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주제의 주장이 당시 전기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II. 本事의 考察

《浣紗記》는 중국역사상 매우 유명한 전쟁 이야기인 「吳越爭霸」를 그린 역사극이다. 春秋時代 吳越 兩國이 패권을 다투었던 복잡한 관계는 그 史實 자체가 戲劇性이 매우 강하다. 작자는 이 희극성이 강한 史實에다 민간에 전해 내려오던 西施의 이야기를 교묘하게 엮어 《浣紗記》를 만들었다. 《浣紗記》의 주된 줄거리인 吳越爭霸의 기록과 서시의 기록을 찾아 정리 분석하여 《浣紗記》의 본사를 고찰해보자.

吳越爭霸의 史實을 기록한 史書는 《左傳》、《國語》、《史記》등이 있다. 《左傳》은 定公十四年、哀公元年、哀公十二年、哀公二十年에, 《國語》는 <吳語>、<越語上>、<越語下>에서 그리고 《史記》는 <吳太伯世家>、<越王勾踐世家>、<伍子胥列傳>、<貨殖列傳>등 편에서 吳越爭霸의 기록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史書의 기록들은 모두가 단편적인 기록으로 연결된 완전한 이야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左傳》卷二十九 定公下>의 <定公十四年>의 기재를 살펴보자.

3) 郭英德 《明清文人傳奇研究》(天津出版社, 1991년), 9쪽 참조

오나라가 월나라를 공격하였다. 越子 구천이 이를 막으려고 構李에서 진을 쳤다. 구천은 오나라 군대가 정연한 것을 우려하였다. 결사대로 두 번이나 공격하였으나 모두 오나라에게 잡혀버렸고 오나라 군대는 동요하지 않았다. ……월자는 이 기회를 타서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크게 쳐부었다. 월나라 大夫 靈姑浮가 창으로 闔廬의 엄지발가락을 쳤다. 합려는 다쳤고 신 한 짝을 빼앗았다. 합려는 돌아가다가 陁에서 죽었다. 취리에서 겨우 칠 리 떨어진 거리였다. 夫差는 사람을 뒤편에 세워놓고 자기가 출입할 때 반드시 자기를 향해서 「부차야! 월왕이 부친을 죽인 것을 잊었느냐?」라고 말하게 했다. 그러면 부차는 곧 「어찌 감히 잊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삼 년이 지나서 월나라에게 복수를 하였다. (吳伐越, 越子勾踐繫之陳于構李. 勾踐患吳之整也, 使死士再擒焉, 不動, ……越子因而伐之, 大敗之. 靈姑浮以伐擊闔廬, 闔廬傷, 將指取其一履, 還卒於陁, 去構李七里. 夫差使人立於庭, 苟出入, 必謂己曰: 「夫差而忘越王之殺而父乎?」則對曰: 「唯不敢忘。」三年乃報越。)4)

《左傳》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봐도 이처럼 단편적인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左傳》의 오월쟁패에 관한 기재에는 勾踐、姑浮、闔廬、夫差、伯嚭、伍子胥 등의 기록은 있으나 范蠡、文種、西施에 관한 기록은 없다. 《國語》는 <吳語>、<越語上>、<越語下>등 三卷에서 吳越爭霸의 기록이 보인다. 吳王 夫差가 越나라를 공격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범려가 공을 세우고 벼슬을 사양하고 배를 타고 五湖로 떠나가고 월왕은 그 공을 나타내기 위해 금으로 범려의 상을 만들어 참배했다는 것까지 기재하고 있다. 《左傳》보다는 비교적 상세하고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범려와 문종은 등장하지만 西施의 기록은 없다. 《史記》는 <吳太伯世家>、<越王勾踐世家>、<伍子胥列傳>、<貨殖列傳>등 편에서 吳越爭霸의 기록이 보인다. 《浣紗記》의 주요한 등장인물들이 거의 다 보이지만 여전히 서시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볼 때 史書의 오월쟁패 기재에서는 서시의 기록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서시에 관한 연구는 이미 비교적 자세히 연구되어졌다. 曾永義교수는 <西施故事志疑>5)에서 「西施」라는 이름은 《莊子·齊物論》、《莊子·天運篇》、《管子·小稱篇》、《孟子·離婁篇》、《慎子·威德篇》、《楚辭九章惜往日》 등에서 보이지만 이러한 기재에서 서시는 美人의 대명사일 뿐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보자.

《管子·小稱篇》:

모장과 서시는 천하의 미인이다. 원한이 얼굴에 가득하다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없다. (毛嬙、西施, 天下之美人也, 盛怒氣於面, 不能以爲好.)

4) 楊伯峻 《春秋左傳注》(臺北, 源流出版社), 1596쪽.

5) 曾永義 <西施故事志疑>; (<說俗文學>, 聯經出版社, 1980년), 112쪽 참조.

《莊子·天運篇》：

서시가 가슴을 앓아 눈살을 찌푸렸다. 그 마을의 추녀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여겼다. 돌아가서 역시 손으로 가슴을 바쳐 들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西施病心而曠，其里之醜人見而美之，鄰亦瘁心而曠其里。)6)

이상과 같이 위의 열거한 자료에 의하면 서시는 미인의 대명사 역할만 했을 뿐이다. 그러다 《墨子·親士篇》에 와서 서시의 죽음을 언급하였다.

비干的 죽음은 그 강직함 때문이고, 맹분이 살해당한 것은 용기를 뽐내었기 때문이고, 서시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그 아름다움 때문이고, 오기가 찢긴 것은 그가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比干之殪，其抗也；孟賁之殺，其勇也；西施之沈，其美也；吳起之裂，其事也。)7)

여기서 서시는 충신 比干, 용사 孟賁, 무장 吳起 등과 같이 이야기되었고 그녀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상 자료에서는 모두가 서시와 오월쟁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두 이야기를 처음으로 접목시킨 것은 趙曄의 《吳越春秋》이다. 趙曄는 東漢 光武帝 시기의 사람이다. 《吳越春秋》는 원래 12권이었으나 지금은 10권만이 남아있다. 체재로 보면 稗官雜記에 속한다. 문인들은 자신의 재능을 나타내려고 많은 수식과 더불어 이야기의 줄거리도 많이 꾸몄다. 때문에 「述而不作」하여 정확하게 기록하는 史書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앞에서 《國語》가 《左傳》보다 상세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는 오월쟁패의 끝 부분의 이야기를 「범려가 공을 세우고 관직을 사양하고 배를 타고 五湖로 떠나가고 월왕은 그 공을 나타내기 위해 금으로 범려의 상을 만들어 참배했다(范蠡辭官泛湖歸去，勾踐爲表其功，以良金鑄范蠡之狀，而朝禮之。)。」라고 하였다. 《史記》에 와서는 「범려는 큰 벼슬 아래 오래 머물기 어렵고 구천의 사람됨이 환난은 같이할 수 있어도 안락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여겨 떠났다(范蠡以爲大名之下，難以久居，且勾踐爲人，可與同患，難與處安，爲書辭。)。」8)가 더해져 범려가 벼슬을 마다하는 동기를 잘 나타내었다. 하지만 아직도 正史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吳越春秋》에서는 正史의 범위를 벗어난 꾸밈이 더해졌다. 범려가 문종에게 공을 세우고는 물러나야 한다며 자신과 같이 떠나자고 권했지만 문종은 범려의

6) 陳鼓應 《莊子今註今譯》(臺灣商務印書館, 1979년), 下冊411쪽.

7) 李漁叔 《墨子今註今譯》, (臺灣商務印書館, 1979년), 4쪽.

8) 馬持盈 《史記今註》(臺灣商務印書館, 1979년), 1763쪽.

말을 따르지 않다가 죽음을 당하는 장면「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고, 적국을 멸하면 모신을 죽인다(狡兔死, 良犬烹; 敵國滅, 謀臣亡)」는 이야기를 더했다. 이것은 조엽이 구천의 「긴 목에 새부리같은 입을 가졌고, 매의 눈매에 이리 걸음걸이니 위험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안락은 함께 할 수 없다(長頸鳥喙, 鷹視狼步, 可以共患難而不可共處樂, 可與履危, 不可與安)」⁹⁾는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부러 편입해 넣은 것으로 소설적인 흥미와 생동감을 더해졌다. 이러한 효과를 위하여 조엽은 미인의 대명사인 서시를 오월쟁패의 이야기 속에 넣어서 오월쟁패의 역사를 생동감이 있고 흥미가 있는 「小說家」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吳越春秋》에서도 서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단지 서시와 鄭旦 두 미녀를 오왕 구차에게 바쳤다는 기록만 있고 범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袁康의 《越絕書》, 《吳地記》, 晉 王嘉의 《拾遺記》도 대개 《吳越春秋》의 내용을 답습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서시는 원래는 오월쟁패와는 관계가 없는 고대 미인의 대명사에 불과했으나 조엽에 의해 오월쟁패의 이야기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서시 형상은 지금의 서시의 형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吳越春秋》와 《越絕書》 등에서의 서시는 월나라가 전술적으로 미인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인물로서 작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했었다. 예를 들어보자.

亭蘿山에서 장작을 파는 자의 딸을 찾았다. 서시와 정단이라 불렀다. 비단으로 꾸미고 자태와 걸음걸이를 가르쳤다. 토성에서 배우고 도시에 거하였다. 삼년을 배워 익숙해지자 오왕에게 바쳤다. (乃使相者國中, 得亭蘿山鬻薪之女。曰西施、鄭旦, 飾以羅縠, 教以容步, 習於土城, 臨於都巷, 三年學服而獻於吳。)¹⁰⁾

그러나 唐代에 이르러 여러 시인들의 시가 속에서 서시와 오월쟁패와의 관계는 의심 없이 노래되었다¹¹⁾. 게다가 오월쟁패의 이야기에서 서시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되고 또 서시의 결말에 대해서도 갖가지 설이 생겨났다. 이러한 서시 형상의 변화에 관하여는 孫文娟의 논문 《歷代西施形象研究》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 설명하였다.¹²⁾

9) 趙曄 《吳越春秋》(四部備要·史部, 臺灣中華書局, 卷十), 8쪽.

10) 趙曄 《吳越春秋》(四部備要·史部, 臺灣中華書局, 卷八), 9쪽.

11) 萬楚 <五日觀妓>의 「西施漫道浣春紗, 碧玉今時鬥麗華」、李白 <效古二首>의 「自古有秀色, 西施與東鄰, 娥眉不可妒, 況乃效者嘖」와 <西施>의 「一破夫差國, 千秋竟不還」、王維 <西施詠>의 「朝爲越溪女, 暮作吳宮妃」、劉長卿 <題西施障子>의 「窗風不舉袖, 但覺羅衣輕」、杜牧의 「西子下姑蘇, 一綰遼陽」 등이 있다.

12) 孫文娟, 《歷代西施形象研究》, (清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석사논문, 1998년), 4-18쪽 참조.

오월쟁패를 소재로 한 희곡으로는 宋元南戲로 《浣紗女》、《楚昭王》가, 金院本으로 《范蠡》, 元雜劇으로는 關漢卿의 《姑蘇臺范蠡進西施》、吳昌齡의 《浣紗女抱石投江》、李壽卿의 《說專諸伍員吹簫》、宮天挺의 《會稽山越王嘗膽》、高文秀의 《伍子胥棄走樊城》、趙明道の 《陶朱公范蠡歸湖》등이 《錄鬼簿》와 《太和正音譜》에 제목이 수록되어 있다. 李壽卿의 《說專諸伍員吹簫》와 鄭廷玉의 《楚昭王疏者下船》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趙明道の 《陶朱公范蠡歸湖》의 일부가 《雍熙樂府·卷十一·新水令》에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가 散逸되었다.

이것으로 서시의 이야기는 민간에 전해내려 오던 이야기를 문인들의 손을 거치면서 꾸며지고 만들어지면서 원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독립적으로 무대에서 공연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劇目を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서시고사와 관계 있는 희곡들은 아직도 여전히 어떤 한 부분의 줄거리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姑蘇臺范蠡進西施》、《陶朱公范蠡歸湖》등은 인구에 회자하는 작은 부분의 줄거리를 전체 극의 소재로 삼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明代에 와서 양진어의 《浣紗記》가 나오면서 서시와 오월쟁패의 이야기는 마침내 완전한 줄거리를 제대로 갖춘 희곡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상에서 오월쟁패의 史實과 민간전설인 서시고사의 변화 발전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浣紗記》의 본사는 어느 한 권이라고 국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浣紗記》의 본사는 기본적으로는 오월쟁패의 史實과 서시고사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들 이 독립된 두 이야기를 처음으로 접목시킨 것은 《吳越春秋》이다. 때문에 《吳越春秋》는 《浣紗記》의 중요한 본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 외에 앞에서 나열한 희곡들도 《浣紗記》의 중요한 본사가 되었음이 틀림없다. 다만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뿐이다.

양진어는 극본 《浣紗記》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편을 하였다. 희곡 예술의 특징과 조건을 맞추기 위한 특수한 요구 때문에 개편한 것 이외에도 작자가 의도적으로 개편한 곳을 찾아보면 작자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사와 《浣紗記》의 비교를 위해 본사에 대한 고찰에 이어서 《浣紗記》의 대략의 줄거리를 살펴보자.

Ⅲ. 劇情梗概

《浣紗記》의 대략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월나라 上大夫인 범려는 山陰으로 봄나들이를 왔다가 苧羅村의 시냇가에 이르렀다.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는 시골 처녀 서시를 보고서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녀와 결혼을 약속한다.

吳王 夫差는 伍子胥·伯嚭와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월나라를 공격한다. 월나라는 전쟁에서 대패하여 會稽에서 포위 당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 越王 勾踐은 범려의 계책을 받아들여 재물과 미녀를 보내어 吳나라 太宰인 백비를 매수하고 下大夫 文種을 사신으로 보내 항복을 요청한다. 매수 당한 백비는 오왕 부차에게 항복을 받아들일 것을 건의한다. 오자서는 이 기회에 월나라를 멸망시켜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諫言하지만 부차는 백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항복을 받아들인다.

월왕 부부는 범려와 함께 오나라에 불모로 잡혀가 石室에서 오왕의 말을 기르는 천한 일을 하며 지낸다. 한편 서시는 곧 오겠다면 떠난 범려를 기다리다 병이 난다.

어느 날 오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姑蘇台에서 멀리 월왕이 있는 석실을 보았다. 월왕 부부 그리고 범려가 모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부와 군신의 예를 잃지 않은 것을 보고 가련한 생각이 들어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오왕 부차가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월왕 구천은 범려의 계략에 따라 문병을 가서 부차의 풍을 맞보고서 壬申일에 쾌유할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부차는 구천의 말대로 병이 나왔다. 오왕 부차는 감동하여 월왕과 범려를 월나라로 돌려보낸다. 오왕 부차는 사냥을 즐기며 환락에 빠져 있고, 오자서와 태자 友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臥薪嘗膽하며 신하들과 복수를 계획한다. 문종이 미인계를 써서 오왕을 迷惑시키자는 계책을 내고 범려는 자신의 약혼녀인 서시를 보내자고 한다. 구천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범려는 「소신이 듣건대 천하를 위하는 사람은 집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이니 왕께서는 염려하시지 안으셔도 됩니다.」라고 한다. 범려는 서시를 설득하여 궁궐로 데려와 노래와 춤을 배우게 한다.

오자서는 吳가 齊나라를 공격하면 월나라가 그 틈을 타서 吳를 공격할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할 결심을 한다. 그리하여 아들을 의형제인 齊나라 鮑大夫에게 맡기고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과 헤어진다.

범려는 직접 서시를 데리고 吳나라로 가서 오왕 부차에게 서시를 바친다. 부차는 매우 좋아하며 기뻐한다. 때마침 齊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던 오자서가 이를 보

고서 부차에게 서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諫言하지만 부차는 서시를 받아들인다.

부차는 서시를 매우 총애하여 갈수록 미혹해진다. 게다가 越은 또 九術로써 오왕을 더욱 미혹시킨다. 월은 오왕에게 神木 2개를 보내 궁전을 건축하게 한다. 오자서의 知友인 公孫聖이 오왕의 꿈을 해몽하며 凶兆가 많으니 齊를 공격하지 말라고 진언하다 죽임을 당한다. 태자 友가 부친에게 諫言하지만 소용이 없어 오자서와 함께 탄식한다.

오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오왕 부차에게 齊나라 정벌을 제지하는 간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오왕은 대군을 거느리고 齊나라를 정벌하러가고 태자는 老弱한 군사들로 나라를 지키다가 越軍의 공격에 대패하고 태자 友는 포로가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오왕은 백비를 사신으로 보낸다. 백비는 뇌물을 가지고 가서 투항을 받아들라고 간청하지만 월왕은 거절한다. 범려가 대군을 이끌고 甯나라 서문에 도착했을 때 오자서의 혼령이 나타나 「이 문은 내가 지키니 동문으로 가라!」라고 하여 동문으로 진군한다. 낭패한 오왕은 서시에게 상의하였다. 서시는 「북문으로 도망 나가서 陽山에 잠시 숨어 계십시오. 소첩은 이곳에 있다가 越軍이 궁전으로 오면 물러가라고 명령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서시는 범려가 도착하자 오왕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범려는 陽山으로 가서 오왕에게 자결을 강요하고 오왕은 자결한다. 도망가던 백비는 억울하게 숨진 오자서 등의 혼령에게 죽임을 당한다.

범려는 월왕은 고난은 함께 할 수 있어도 환락은 함께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여기고 서시를 데리고 太湖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이상은 《浣紗記》 44齣의 대략의 줄거리이다.

IV. 改編과 主題

《浣紗記》의 전체 줄거리와 예술구상을 살펴보면 줄거리의 안배와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서 본사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浣紗記》의 본사는 《吳越春秋》 하나라고 국한할 수 없다. 하지만 《吳越春秋》가 처음으로 오월 전쟁의 사실과 서시고사를 접목시켰고, 실제로 《浣紗記》의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곳곳에 《吳越春秋》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과, 또 《浣紗記》의 개편하기 전의 이름이 《吳越春秋》라고¹³⁾ 한 것을 미루어 봐서 《浣紗記》의 중요한 본사는

13) 《浣紗記》 第1齣〈家門〉에 「看今古浣紗新記 舊名吳越春秋。」라고 명시하였다.

《吳越春秋》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吳越春秋》와 그 외에 여러 가지 본사가 될만한 것들과 《浣紗記》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浣紗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 보고자한다.

먼저 서시 形象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사의 고찰에서 이미 서시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史書의 기재에 의하면 서시와 오월쟁패와는 원래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조엽이 《吳越春秋》에서 처음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두 사건을 연결을 시켰다. 하지만 《吳越春秋》와 《越絕書》 등에서의 서시는 미인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인물로서의 잠시 이름만 등장하는 정도에 불과했었다. 이러한 서시의 형상이 《浣紗記》에서는 현격한 변화와 함께 그 비중이 매우 커졌다. 《浣紗記》의 시작과 결말은 서시와 범려의 才子佳人식 애정고사로 이루어졌다. 第一齣은 <家門>으로 줄거리의 시작이 아니고 창작의 동기, 줄거리의 개요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줄거리의 시작인 第二齣<遊春>에서 범려와 서시가 만나서 장래를 약속하는 것으로 극이 시작되고 마지막齣 <泛湖>에서 범려가 성사한 후에 서시와 같이 떠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렇듯 《浣紗記》 전체극에서 서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나 서시의 비중이 커지고 극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한 것은 《浣紗記》가 처음이 아니다. 關漢卿의 《姑蘇臺范蠡進西施》와 무명씨의 《范蠡沉西施》등의 극에서도 서시는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浣紗記》는 <泛湖>로 결말을 맺으면서 주요 본사와 다른 극과는 달리 서시의 형상을 애국적 미녀로 형상화하려는 고심을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본사에서는 서시의 결말은 비극으로 끝나며 나라를 망친 여자라는 「女禍」의 형상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서시 형상을 《浣紗記》에서는 애국심이 강한 미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작자는 애국적인 서시의 희생과 범려의 행위를 통해 愛國情操를 강조하였다. <寔臣>에서 문종이 월왕에게 미인계를 써서 오왕을 미혹하게 하자고 건의를 하자 오왕은 미녀를 찾기 어려워하니 어찌하면 좋은지를 물어본다.

[小生: 구천]대부의 제책은 매우 좋소 그러나 佳人을 얻기 힘드니 어찌하면 좋겠소?

[生: 범려] 처녀 한 명이 있습니다. 산중에 홀로 살고 있는데 이름다음이 아주 뛰어난 세상에서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미 소신에게 시집 올 것을 허락하였으나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니다. 만약 지금 쓰시겠다고 당장 바치겠습니다.

[小生]비록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경의 아내이니 그럴 수 없소.

[生]소신이 들건대 천하를 위하여 자는 집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이니 주공께서는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小生〕大夫之策甚善。但恐佳人難得，如何是好？〔生〕有一處女，獨居山中，艷色絕倫，

舉世罕見。已曾許臣，尚未娶之。今若欲用，即當進上。[小生]雖未成配，已作卿妻，恐無此理。[小生]臣聞爲天下者不顧家，況一未娶之女？主公不必多慮。)¹⁴⁾

양진어는 「조국을 위해서는 집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범려의 입을 빌어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은 희생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남녀간의 애정도 희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범려가 서시를 설득하는 장면 등에서도 이러한 예는 많이 나온다. 범려는 서시를 매우 사랑하지만 나라의 운명을 위해 서시를 적국으로 보내 酒色으로 오왕을 미혹시키고 군신간에 이간을 시키는 공작을 하게 한다. 이러한 부분은 양진어가 창작한 것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애국정신은 《浣紗記》 이전의 회곡에는 비교적 보기 드문 주제이다. 작자의 이러한 愛國情操의 주장은 오자서를 통해서도 강조하였다. 《浣紗記》에서 오자서 고사와 관계가 있는 齣으로는 第四齣<伐越>과 第八齣<允降>이후의 第十二齣<談義>、第二十齣<論俠>、第二十六齣<寄子>등은 전적으로 오자서를 위한 것이다. 특히 第三十三齣<死忠>은 오자서가 諫言하다가 죽음을 맞는 장면으로 오자서가 자신의 일생을 자술한다. 이 부분은 《浣紗記》에서 매우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으로 오자서의 애국정신이 잘 나타나있다. 작자의 이러한 안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음으로는 작자가 개편과 비중의 안배를 통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서시와 범려의 애정고사를 보면 두 사람의 애정고사가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고 전체 극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작자는 서시와 범려 두 사람의 감정처리를 매우 억지스럽고 粗率하게 처리하였다는¹⁵⁾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서시와 범려 두 사람의 애정 고사를 《浣紗記》의 主腦로 삼기는 곤란하다. 또 勾踐이 복수하는 주제는 표현이 매우 약하고 산만하다. 심지어 「臥薪嘗膽」하는 부분마저도 빈백으로 간단히 처리하여 넘어갔다. 어떤 평론가들은 오월쟁패 이야기에서 가장 의의 있는 부분은 월왕 구천이 「臥薪嘗膽」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茅盾은 《關於歷史和歷史劇》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浣紗記》의 사상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勾踐의 臥薪嘗膽하며 發憤하여 富强을 도모하는 것을 신경을 써서 묘사하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지면을 夫差가 간신의 말을 듣고 충신을 살해하고 주색에 빠져있는 것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浣紗記》의 思想性은 不高的, 因爲它並沒有着意描寫勾踐的 臥薪嘗膽, 發憤圖強, 而用不少篇幅寫了 夫差聽信

14) 梁辰魚 《繡刻浣紗記定本》 第二十一齣<婁臣> (開明書局, 1970年)

15) 朱昆槐, 《梁辰魚及其作品》 (臺灣大學 中文研究所 碩士論文, 1972年); 朱昆槐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이점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奸佞, 殺害忠良, 沈湎酒色。) 16)

또 王驥德이 《曲律》에서 전기의 중요한 곳은 전력을 다해 발휘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문장에서 《浣紗記》를 예를 들어 말했다.

전기 중에서 긴요한 곳에는 필히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충분히 나타내어야 한다. 예를 들면 《浣紗記》에서 월왕이 嘗膽하고 부인이 蠶絲 캐는 일……모두가 그 전기의 주요부분이다. 어떻게 대강 적당히 지나 갈 수 있겠는가? (傳中緊要處, 須重著精神, 極力發揮使透, 如浣紗遺了越王嘗膽及夫人採葛事, ……皆本傳大頭腦, 如何草草放過。) 17)

이러한 평은 《浣紗記》의 일면만 보고 평한 것으로 양진어의 창작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양진어는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역사상의 오월쟁패 이야기를 그냥 敷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다른 의도가 있었다. 이것은 당시 정치상황과 梁辰魚의 처지를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양진어가 활동했던 시기는 嘉靖·隆慶시대였다. 이시기는 나라 밖으로는 밀무역의 탄압에 불만을 품은 왜구들이 남쪽 연해를 자주 침범하였고, 북으로는 俺答가 침입을 하였다. 나라 안으로는 昏君을 비롯하여 조정의 정치가 부패하여 權臣들과 宦官들이 권력을 휘둘러 정치의 암흑을 조성하였다. 많은 正人君子는 대부분 배척을 당하거나 살해되기도 하였다. 특히 嚴嵩父子가 권력을 이용하여 왜구와 내통하는 자들을 비호하고 왜구 토벌에 큰공을 세운 영웅은 도리어 죽여버렸다. 예를 들면 福建 巡撫인 阮鶚이 왜구들과 내통하였으나 많은 뇌물로 엄승을 매수하여 죄를 면하는가 하면, 浙江 王江涇에서 왜구를 대패시킨 張經은 엄승의 奸黨 趙文華의 모함을 받아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또 왜구 토벌의 名將 俞大猷도 엄승부자에게 아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승부자의 모해를 받았다. 이러한 정국은 왜구들이 더 猖獗하도록 하여 국방에 위협을 조성하였다.¹⁸⁾ 양진어가 처한 시기는 이렇게 권신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조정의 법과 규율이 부진하여 內憂外患하고 사대부들이 꺾박을 받는 때였다. 양진어는 이런 奸臣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기가 어려워지자 자연히 오월쟁패 이야기 중의 오왕 부차, 재상 백비 등의 인물묘사를 통하여 당시의 朝廷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려고 하였을 것이며, 동시에 범려, 오자서, 문중, 公孫

16) 茅盾 《關於歷史和歷史劇》(作家出版社, 1962년), 111쪽.

17) 王驥德 《曲律》(《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第四集, 中國戲劇出版社, 1982년), 137쪽.

18) 《明史紀事本末》卷五十五, <沿海倭亂><嘉靖二十五年條> 참조.

聖 등을表彰함으로써 자기 마음 속의 생각과 포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였다.

《浣紗記》을 보면 오나라의昏君과 간신의 형상 중에서 국가 衰亡의 내부 원인을 드러내어 보이려고 하였다. 오나라는 강남을 제패한 강대한 나라이다. 오왕 부치는 월나라를 정벌한 후에 세도를 부리며 음란하고 사치하였고, 諫言을 듣지 않고 간신의 말만 믿고 忠良을 살해하였다. 게다가 부치는 월나라의 미인제에 빠져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자신도 죽는 禍를 자초하였다. 간신 백비는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적과 내통하고 충신을 모함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심각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부차, 백비 등의昏君奸臣들의 형상 중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명나라 통치체급의 추악한 면모를 연상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浣紗記》에서 夫差는 嘉靖皇帝를 암시하고 伯嚭는 嚴嵩父子를 암시하고 오자서는 楊繼盛을 암시한다면 작자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작자는 勾踐이 臥薪嘗膽하면 「發憤圖強」하는 것보다는 오왕이 주색에 빠져 국정을 그르치고 간신들이 忠良을 해치고 나라를 그르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採蓮>, <諫父>, <死忠>, <飛報>, <行成>, <不允>에서 양진어는昏君이 공을 세우기 좋아하고 荒淫無道하고 忠良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그중 <死忠>에서 오자서가 죽기 직전에 비분에 차서 혼군을 욕하는 장면을 예로 보자.

[四塊玉] 그는 지금 정직한 신하는 죽이고 저 간사한 놈들 가까이 하네. 은종일 음탕한 소리와 미색에 놀아나고, 술잔은 [그를]미궁에 빠져들게 하네. 사직이 위태로워도 상관치 않고, 백성이 궁해도 상관치 않고, 아들이 다른 곳으로 헤어져 있어도 상관치 않는구나. ([四塊玉] 他他他今將正直誅, 到與那奸邪近。鑪日價淫聲美色伴紅裙, 酒盃兒送入迷魂陣。那裏管社稷危, 那裏管人民寤, 那裏管親生兒別處分。)¹⁹⁾

慷慨激昂된 어투로 혼군을 시원하게 욕하고 있다. 그리고 <伐越>, <通駮>, <允降>, <同盟>, <擒駮>에서는 탐관오리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로 그들을 질타하고 있다. <通駮>에서 문종이 두 미인과 많은 금과 비단 등으로 백비를 매수하는 장면을 보자. 문종이 백비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자 백비는 성을 내며 「내놈이 문종이나!」라며 야단친다. 그러나 문종이 예물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는 금세 태도가 바뀌면서 말한다.

19) 梁辰魚 《繡刻浣紗記定本》第三十三齣<死忠> (開明書局, 1970年)

[丑]어찌 이리 많소, 여봐라 양을 잡아라. 술을 데워오고 문나리를 모셔오너라. [小末 이 末을 응대하며]太宰시여, 너무 다 기뻐하지 마십시오. 아직 한 쌍의 살아있는 물건이 있는데 단지 太宰께서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 감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丑]무슨 물건이요? 가져와 보시오.

([丑]怎麼要許多, 小廝殺起羊來, 燙起酒來, 留文老爹坐去。[小末應下末]太宰, 你且不要快活盡了, 還有一對活東西, 只怕太宰用不著, 不敢送進來。[丑]甚麼東西? 著來我看。)

이어서 문종이 데리고 온 두 명의 미녀가 절을 한다.

[旦貼] 나으리, 절 받으세요 [丑이 웃으며] 두 미인은 일어나시오. 여봐라 소를 잡아라. ……잠깐, 내가 묻겠소. 당신 主公이 많은 물건을 보내왔는데 무슨 분부가 있는 거요? ……

[丑] 내가 지금 당신 주공의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 내 몸은 모두 당신 주공 것이요. 이런 작은 일들은 모두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旦貼]老爹叩頭。[丑笑科]二位美人請起, 小廝殺起牛來。……且住, 我且問你, 你主公送了許多東西, 不知有何分付? ……[丑]我如今受了你家主公許多恩惠, 我的身子通是你家主公的了, 這些小事, 不難一一從命, 小廝那裏?)²⁰⁾

이러한 묘사는 탐관 백비의 본색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여러 齣을 살펴보면 작자가 오월쟁패의 이야기 가운데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 보이려고 고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작자가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해 심각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泛湖>로 전체 극을 끝낸 것에 관해서 살펴보자. <泛湖>는 마지막 齣으로 전체 극의 결말을 장식하였다. 徐復祚가 「全無收攝」라고 한 것은 아마도 전기는 「大團圓」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데 그 관례에 따르지 않고 「冷清場」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第四十四齣<治定>에서 이미 大團圓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梁辰魚가 <治定>으로 막을 내렸다면 신선미나 독창미가 전혀 없어 음미할만한 가치가 없어지게 되며 관중들의 싫증을 사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작자는 이미 第二齣<遊春>, 第二十三齣<迎施>, 第二十七齣<別施>, 第三十四齣<思憶> 등에서 <泛湖>의 복선을 만들어 놓았다. 또 愛情劇의 「夫榮妻貴大團圓」, 「奉旨完婚大團圓」적인 공식의 틀을 벗어나서 喜劇의 정취에 비극적인 함의도 갖추고 있어 寓意가 깊고 여운이 끝이 없어 사람들이 계속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

20) 梁辰魚 《繡刻浣紗記定本》 第七齣<通駮>, (開明書局, 1970年)

다.²¹⁾ 뿐만 아니라 <泛湖>는 음률과 문장에 있어서 전체 극의 精髓가 있는 곳이다. 양진어가 전기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泛湖>로 끝을 맺은 것은 의도적인 것임이 틀림없다.²²⁾ 이것으로 보아 작자가 <泛湖>로 극의 끝을 맺은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의미는 은연중에 범려와 서시가 <泛湖>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므로써 越王 勾踐은 同苦는 할 수 있어도 同樂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곧 범려가 통치자에 대해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은 작자가 《浣紗記》를 통해 당시 통치자에 대한 비판을 체현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V. 結語

양진어는 《浣紗記》를 통하여 당시 자신이 깊이 느꼈던 감회를 나타내고자 했다. 明人 傳奇의 <家門>은 작자의 창작의도를 나타낸다.

[紅林橋近] ……천리마의 다리는 마구간에 갇혀 있음을 슬퍼하고 기러기의 날개는 새장 속에서 시달리네. 옛일을 찾아 가보며 아픈 마음을 모두 붓끝에 맡긴다. 누가 이것을 지었냐고 물으니 평생 悲憤慷慨한 뜻의 시장에서 장작을 팔던 양백룡이요. ([紅林橋近] ……驢足悲伏檻，鴻翼困樊籠。試尋往古，傷心全寄詞鋒。問何人作此，平生慷慨，負薪吳市梁伯龍。)

이것은 양진어가 《浣紗記》를 창작한 의도는 역사적 사실을 빌어 자신의 비분강개한 감개를 기탁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양진어가 오월쟁패의 이야기를 가지고 《浣紗記》를 창작한 것은 결코 옛날 일을 그리워해서가 아니고 옛것을 빌어 현실을 풍자하려는 깊은 뜻이 있었다. 그는 주색에 빠져 讒言을 믿고 忠諫을 받아들이지 않은 오왕 부차와 뇌물만을 탐하고 왕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무능한 權奸 백비를 힘있게 비판하였다. 이것은 실지로 양백룡 자신이 처했던 시대의 인물들 즉 황제와 권신 등의 인물을 형상화한 것이다. 吳越 두 나라의 충신을 褒揚하고 昏君과 權奸을 辱하므로 역사의 경험을 되살려 교훈으로 삼으려 했다. 《浣紗記》의 이러한 특징은 후세 崑曲傳奇를 위해 「離合之情을 빌어서 興亡之感을 묘사하는」 창작의 길을 열어

21) 王永健 《明清傳奇》(江蘇教育出版社, 1989년), 64쪽 참조

22) 張敬 《明清傳奇導論》: 「徐復祚가 《浣紗記》는 「全無收攝」라고 비평하였다. 끝맺음을 대단원의 옛관례에 따르지 않은 것이 바로 伯龍의 뛰어난 점이란 것을 몰랐다(徐復祚批浣紗全無收攝, 不知結筆不習大團圓舊套, 正是伯龍高處.)」(華正書局, 1986년), 30쪽.

주었다. 또 《浣紗記》 이후로부터 역사 題材를 통하여 權臣을 비평하는 것은 崑腔이 興起한 이후 전기들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南洪北孔」이라 칭하는 清代 洪昇의 《長生殿》과 孔尚任의 《桃花扇》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²³⁾ 특히 《桃花扇》은 또 《浣紗記》가 마지막 齣을 전기의 관례대로 大團圓으로 끝을 맺지 않고 의도적으로 <泛湖>로 끝을 맺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張敬교수의 설명을 보자.

……후의 작가들은 生과 旦이 團圓(다시 상봉하는 것)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는 것이 없었다. 長生殿까지도 재차 상봉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다만 桃花扇만이 入道하는 것으로 여운을 남기며 끝을 내어 일반사람보다 훨씬 빼어났다. (……後之作者沒有不是生旦團圓作收, 甚而長生殿都以重圓作結束, 祇有桃花扇以入道、餘韻終篇, 高出俗手之上。)²⁴⁾

이상에서 《桃花扇》이 여러방면으로 《浣紗記》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浣紗記》는 崑曲 傳奇가 「借離合之情, 寫興亡之感」이란 창작의 새로운 길을 열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 자체가 선명한 시대색채와 깊은 社會的 意義를 갖추고 있다.²⁵⁾

《浣紗記》가 崑腔을 널리 전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이란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게다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애국정조의 강조와 강렬한 비판정신은 《浣紗記》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浣紗記》의 이러한 주제방면의 혁신은 傳奇가 發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浣紗記》는 明清 戲曲史에서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參考書目】

23) 王永健《中國戲劇文學的寶庫—明清傳奇》, 江蘇教育出版社, 1989年, 63쪽 참조.

24) 張敬, 《明清傳奇導論》(華正書局, 1986年), 30쪽.

25) 郭英德《明清文人傳奇研究》: 「這部劇作不止爲崑曲傳奇開闢了「借離合之情, 寫興亡之感」的創作新路子, 本身也具有鮮明的時代色彩和深刻的社會意義」(文津出版社, 1991年), 64쪽.

- 梁辰魚 《繡刻浣紗記定本》，開明書局，1970。
- 趙 擘 《吳越春秋》，中華書局四部備要本，臺灣中華書局。
- 周德清 《中原音韻》，《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第一集(中國戲劇出版社)，1982。
- 王驥德 《曲律》，《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第四集(中國戲劇出版社)，1982。
- 沈德符 《顧曲雜言》，《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第四集(中國戲劇出版社)，1982。
- 徐復祚 《曲論》，《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第四集(中國戲劇出版社)，1982。
- 凌濛初 《譚曲雜節》，《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第四集(中國戲劇出版社)，1982。
- 魏良輔 《曲律》，《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第五集(中國戲劇出版社)，1982。
- 李 漁 《閒情偶寄》，《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第七集(中國戲劇出版社)，1982。
- 青木正兒 《中國近代戲曲史》，商務印書館，1988。
- 吳 梅 《中國戲曲概論》，廣文書局，1971。
- 余秋雨 《中國戲劇文化史述》，駱駝出版社，1987。
- 王永健 《中國戲劇文學的寶庫—明清傳奇》，江蘇教育出版社，1989。
- 葉長海 《中國戲劇學史稿》，駱駝出版社，1987。
- 張 敬 《明清傳奇導論》，華正書局，1986。
- 王季烈 《螭廬曲談》，臺灣商務印書館，1971。
- 張 庚、郭漢城 《中國戲曲通史》，中國戲劇出版社，1981。
- 周貽白 《中國戲曲發展史綱要》，上海古籍出版社，1979。
- 周貽白 《中國戲劇發展史》，台北學藝出版社，1980。
- 夏寫時 《中國戲劇批評的產生和發展》，中國戲劇出版社，1980。
- 馮天瑜、何曉明、周積明 《中華文化史》，上海人民出版社，1990。
- 朱昆槐 《梁辰魚及其作品》，國立臺灣大學中文所碩士論文，1972。
- 陳素蘭 《浣紗記研究》，文化大學中文所碩士論文，1977。
- 張恆豪 《浣紗記評析》，東吳大學中文所碩士論文，1978。
- 孫文娟 《歷代西施形象研究》，清州大學校中語中文學科석사논문，1998。

【中文提要】

《浣紗記》通過生旦的悲歡離合，描寫了吳越兩國的興亡盛衰的一部歷史劇。《浣紗記》得以廣為流傳的原因，一方面是因為它首倡性地用崑腔「新聲」譜寫劇本，清麗悠揚、優美悅耳的聲腔和富於表現力的伴奏樂器，使人有耳目一新之感；另一方面，也是更為重要的，是該劇的思想內容能激起觀眾或讀者的共鳴，藝術感染力較強，因而受到群眾贊賞。《浣紗記》的成功，推動了崑腔的繁榮和發展。無論何種美妙的聲腔，都必須憑借好的劇本才能生存和發展。梁辰魚經過構思，重新創造了一系列典型形象，豐富和提高了人物所涵蓋的思想意義，讓人們從歷史故

事中得到有益的啓發和聯想。

《浣紗記》是一部具有深刻思想內容的作品。它以范蠡和西施悲歡離合的愛情故事爲線索，展開春秋時代以吳越兩國爲主的爭王定霸的歷史場景，從而反映了國家興亡的歷史規律。劇中所演的雖然是歷史故事，但是它所體現的思想精神，卻有著極其深刻的現實意義。其實，《浣紗記》也並不是照搬歷史事實，而是基於歷史真實，依據自己的創作意圖，對歷史事實作藝術加工，這只要查一查有關吳越兩國相爭的歷史，如《左傳》、《國語》之〈吳語〉、〈越語〉、《史記·吳世家越世家》、《吳越春秋》、《越絕書》等本事，就可證實。

作者把吳越爭鬥的歷史和有關西施的傳說巧妙地組織在一起，通過生動的藝術形象，揭示了吳越所以興衰成敗的原因。從吳國昏君奸臣的形象中，揭示出國家衰亡的內部原因，由盛而衰的真實寫照。吳國佔江南的強大國家，吳王夫差伐越勝利後，驕奢淫逸，縱容奸佞，拒諫遠賢，殘害忠良；見小利而忘大害，屢中越國之計，終於招致亡國殺身之禍。伯嚭以權謀私，奸詐狠毒，嫉賢妒能，通敵賣國。總之，吳國內部矛盾重重，互相傾軋，而對外驕橫霸道，濫用刀兵，演成民窮財盡，國家空虛的局面；最後，終於在內外夾攻的情勢下，遭致滅亡。這對作者所處的明中葉的政治狀況，有著深刻的批判意義。當時的人們，從夫差、伯嚭等昏君奸臣的形象中，很自然地會聯想到明朝統治者的醜惡面貌。

梁辰魚取材於吳越春秋的故事，創作《浣紗記》，並不是發思古之幽情，而寓有借古喻今之深意，他所著力批判的是沉緬酒色、聽信讒言、不納忠諫的吳王夫差，特別是那個貪婪受賄、缺乏遠見、左右皇帝的無能權相伯嚭。這實際上是按照梁伯龍自己所處時代的最高當權者形象來塑造的人物。褒揚吳越兩國的忠臣義士，抨擊昏君權奸，總結歷史的經驗教訓，以爲鑒戒。《浣紗記》的這些特點，爲後來的崑曲傳奇開創了「借離合之情，寫興亡之感」的創作路子。

【주제어】

《浣紗記》，《吳越春秋》，吳越爭霸，西施，范蠡，傳奇